목장 교재

2023년 08월 27일 (주일)

“찬양의 골짜기”

역대하 20장 1절 - 26절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때 아람이 모압과 마온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때의 기록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미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하여 암몬과 전쟁을 치룬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힘을 의지한 전쟁은, 아합왕이 죽고 여호사밧 왕도 겨우 목숨을 건진 것으로 패하고 끝났었습니다. 이후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옳은 재판관과 제사장들을 세우며 다시 영적으로 개혁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아람 한 나라가 아니라, 모압과 마온까지 연합한 적이 여호사밧을 향해 진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여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성도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게 메달릴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히 간구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때와 솔로몬의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서원과 기도를 가지고 와서, 즉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과 유다 백성은 이 적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겸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따라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의 싸움과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나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졌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지극히 큰 소리로 울려드린 영광의 찬송이었습니다. 암몬 연합군들은 칼과 창소리를 요란하게 냈겠지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칼소리는 두려움을 주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소리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영광을 드높이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때, 찬송을 더욱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영광이며 승리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그 다음날 전장에 나가며,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도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칼과 창을 들고 나가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찬송을 앞세웠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요. 그런데 말이 안되는 것이 정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

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앞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암몬의 입장에서도 이 광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복을 입은 찬양대들이 군대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 소리를 들었을때,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당혹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을 행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 암몬 연합군을 다 전멸시킨 것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밀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병을 준비하사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찬송이 앞서고 승리가 따라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을 유다의 대승으로 끝났고 그들은 암몬 연합군들로부터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사흘동안 계속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몇일전까지만해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은, 지금 사흘동안 수도없이 전리품들을 그냥 줍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계획하고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흘동안 전리품을 거뒀던 유다 백성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한 골짜기에 모여 다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은 그날이후 브라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모여 찬양한 곳이 찬양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는 백성이며 찬양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면류관과 같이 하였습니다. 자기 눈 앞에 보이는 온갖 좋은 의복과 무기, 재물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빛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우리도 더 찬양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찬양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하고,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다시 하나님게로 가져와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더욱 거세고 빛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더해지며, **우리 교회는 더욱 크고 찬란한 찬양의 골짜기, 찬양의 성도, 찬양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어 더 찬양하며, 모든 금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찬양하며, 더욱 만유의 주를 찬양하는, **찬양, 찬양, 찬양의 성도와 골짜기,교회 되기를 다함께 사모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 37)

나눔의 시간

1 나는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입니까
2 여호사밧 찬양대는 군대 앞에 서서 먼저 찬양했습니다. 나도 모든 것 위에 먼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 앞에 찬양을 부르십시오.
3 전리품을 챙긴 모든 백성은 다시 모여 찬양의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목장과 교회가 더욱 찬양의 채우고 흘리며, 찬양의 골짜기 찬양의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함께 찬송가 37장을 힘차게 부르며, 내 가정과 목장,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